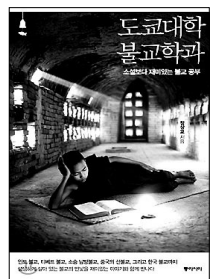


# 유학에 흑한 대학생, 진짜 불교 만나다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성교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5천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책의 첫 출발은 바로 이런 연유서 시작됐다.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불교와 관련된 실태를 하나씩 풀어간다. 도쿄대 불교학과에 유학 중인 저자는 불교에 관한 문헌학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이 불교의 진짜 속살이고 덧칠된 것인지 가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책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서부터 서역과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2,500년 동안의 거대한 문화사적 흐름을 초심자 수준의 눈높이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즉 인도에서 기원해 중국, 우리나라 및 티베트로 전해진 불교의 전개 과정과 경전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대목의 발자취를 하나씩 되짚는다. 동시에 이 책에는

저자가 도쿄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기까지의 사연을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낸 개인적 구도기도 소개돼 있다.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스님으로 출가한 사촌형과의 인연, 도쿄대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서른이 넘어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에 입학한 사연,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그러나 차마 웃지 못할 일화도 함께 전한다.

불교는 발상지인 인도뿐 아니라 서역과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등 역사적으로 광대한 시공간을 무대로 끊임없는 문화적, 지역적 변용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불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의 전래 과정을 추적해 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아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 대한 미신과 오해를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 원전 지식에 근거해 바로잡는다. 또한 서양 불교학 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됐던 19세기말~20세기초 유럽인으로 구성된 둔황 탐험대의 불교 고사본 발굴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특히 만화 영화인 은하철도 999의 창작 모티브를 <화엄경>서 찾는 대목에서는 저

자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문수보살의 인도로 구도 여정을 떠난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보살도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화엄경> 스토리가 은하철도 999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상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거기에는 <화엄경> 성립과정을 끈기 있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주인공 선재동자가 펼치는 구법 여정을 통해 그가 실현하려 했던 보살의 이상에 대해서도 살

### 개인적 에피소드 중심의 구도기

### 불교 전개과정 중 주요 발자취 짚어

### <용수보살전> 내용 새로 각색해 소개

펴본다. 또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한국 불교의 전개과정과 다양한 양상들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현상이 인도와 중앙아시아로 떠났던 구법 여행기, 그리고 손오공이 신라 왕자 출신이라는 '손오공 신라 왕자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꼼꼼히 짚어본다.

이외에도 '불교' 하면 떠올리는 공(空)이라는 번역어의 정착과 중국인의 불교 이해에 크게 기여한 파란 눈의 역경승 쿠마라지바 삼장법사, 일체법의 공성(空性)을 선언한 <반야경>, 그리고 이 경전이 선언한 공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철학적으로 확립해 제 2의 붓다로 추앙받은 대사상가 나가르주나(용수)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들려준다.

책의 마지막에는, 쿠마라지바가 번역해 전해준 <용수보살전>의 내용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각색해 소개한다. 특히 주인공 나가르주나가 육체의 애육에 눈이 멀어 궁핍의 양녀들을 탐하다 함께 잔 친구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깨달음을 얻어 승단에 귀의하는 대목에서는 나가르주나의 인간적 고뇌와 함께 긴박 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마치 현대에 환생한 나가르주나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은 스타일과 박진감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이 책은 불교의 총체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알던 불교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붓다는 곁힘에 근거한 현실주의자” ... 현대과학의 눈으로 본 붓다

### 해커붓다

김병훈 지음 | 반디출판사 펴냄 | 1만4천원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인간을 비롯한 중생이 끝없이 윤회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500년 전의 이 사건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다.

윤회는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다. 윤회를 실현하는 우주의 존재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깨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붓다의 깨달음에 따르면 중생은 살면서 축적한 업(業·카르마)의 정보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다시 태어나서 죽는 무의미한 삶을 무한 반복한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우주의 존재법칙이다.

그리고 해탈은 이런 존재법칙을 깨고 벗어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붓다는 팔정도(八正道)를 닦아 일체 욕망을 버림으로써 업의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부처님 열반 후 2500년이 지나면서 그의 본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채 불교는 점차 어렵고 복잡해졌다. 온갖 형이상학적 사상이 유입되면서 남방(南)불교,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선종(禪宗)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과 내용으로 달라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불교학자 마스타니 후미오가 “불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다.

이 책은 붓다의 육성에 바탕을 둔 초기 불교로 돌아가는 것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초기경전에 담긴 붓다의 본래 가르침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안내한다. 선문답 같이 난해하기만 한 가르침과 달리, 21세기답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윤회'는 어떤 것이며 '해탈'을 어떻게 이루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는 윤회란 번뇌에서부터 괴로움에 이르는 12연기라는 생명체 무한재생프로 그램에 따라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각 생명체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하는 것은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해서라고 한다. 해탈은 12연기나 업같은 정보를 완전히 리셋해 윤회의 사슬을 끊는 일종의 '해킹'인 셈이며, 저자가 책의 제목에 '해커붓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한다.

붓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버리고 출가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

어 죽어야 하는지, 이런 운명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붓다는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모든 번뇌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맑은 눈으로 보고 알았다. 이것이 우주 존재법칙, 그리고 그 존재법칙서 벗어나는 '해탈'의 발견이다. 뇌과학과 심리학의 틀을 적용하면 혼란스런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처리론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윤회를 설명하는 12연기의 의식 또는 존재, 그리고 업(業)이 곧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괴로움-무아'와 공(空)으로 이어지는 가르침도 명쾌하게 드러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빅뱅으로 우연히 생겨난 '우주'에서 중생의 거듭되는 '윤회'가 있고, 블랙홀에 빨려든 물체가 소멸해도 우주 만물의 근원인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티븐 호킹의 우주론과 붓다의 윤회론은 닮은 점이 있다. '정보'를 매개로 두 이론의 접목을 시도한다면 이제껏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을 해결할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주

중생은 축적된 업을 통해 재 탄생 해탈은 존재법칙 벗어나는 해킹 불교, 발생과 소멸 탐구하는 과학

### 중생은 축적된 업을 통해 재 탄생

### 해탈은 존재법칙 벗어나는 해킹

### 불교, 발생과 소멸 탐구하는 과학

과학은 사람을 탐구하지 않았고, 윤회론 역시 우주를 관심에 두지 않았다. 정보를 탐구하는 현대과학의 틀 안에서 우주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다면, 붓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은 재가신도들에게 행복의 첫째 요소로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들었다. “가난한 것과 빛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출가를 권하지도 않았다. 맘 흘려 일해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키우는 재가신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자신과 부모, 처자 그리고 하인들과 일꾼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다.

부처님은 또 계급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답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하인과 일꾼들에게 역량에 따라 일을 배당하고,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들면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때맞춰 쉬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속을 멀리하기는커녕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20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불교에 관심 갖게 된 저자가 현대적 언어로 붓다의 말씀을 소개하는 글들이 돋보인다. 김주일 기자

## 일러스트와 함께 떠나는 산사로의 여정

### 스님, 계십니까

권중서 글, 김시훈 그림 | 지식노마드 펴냄 1만 8500원



사찰과 암자 25 곳을 소개하는 책 <스님, 계십니까>를 여는 첫 장의 제목이 “그래도 사랑뿐이다”라니, 그것도 절에 얽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북으로 간 시인 백성을 평생 기다리며 살아 온 김영한 보살이 1천억원대의 요정 대원각을 염주 하나와 맞바꿔 탄생하게 된 '서울 성북동 김상사', 대담한 성격 묘사가 조각된 환상사 대웅전의 수미단 등이 윤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 등과 더불어 1장에 소개돼 있다. 왜 사랑 이야기로 사찰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까?

시험공부 하듯 문화 유적 안내판을 외우는 것 말고, 깊은 공부가 필요한 어려운 화두에 매달리는 방식 말고, 그저 일상사 때문에 힘들고 머리 복잡할 때 문득 찾아가서 나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생각해보길 권하는 저자의 뜻을 책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다. 너무도 흔하지만 누

구도 피해가지 못할 사랑이란 주제로 책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절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절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공부 하듯 절을 찾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주목 받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김시훈의 일러스트를 100개 넘게 곁들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정확하지만 차갑다. 그에 비해 일러스트는 따뜻하고 보는 이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상상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준다. 글 작가와 뜻이 통하였는지,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자신의 시선과 느낌에 따라 자유롭게 그렸다. 때로는 부처님은 한 척도 없이 절 한 칸에서 태평하게 즐기고 있는 개가 주인공으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쪽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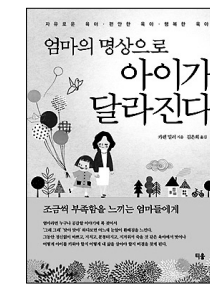
저자는 참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기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의미가 깊은 25곳의 사찰과 암자와 옛 절터를 골랐다. 늘 사람에 치이며 살지만 외로운 도시 사람들에게, 인적 없는 산중에서 오히려 더 진정한 사람의 내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난 문화재가 없이 흔적만 남아 있는 옛 절터라도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있다면 포함시켰다.

김주일 기자

## 명상은 아이의 통찰력 키우는데 효과적

### 엄마의 명상으로 아이가 달라진다

캐린 밀러 글 | 김은희 번역 | 티움 펴냄 1만 3700원



이 책의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미리 준비하거나 연습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직 현재의 즉각성만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매 순간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일기에 엄마들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힘들고 어렵기만 한 육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냥 가르치지 못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슴으로 느끼게끔 저자의 체험을 들려준다. 저자의 딸이 두 돌 가까이 됐을 때 일이다. 아이는 감동이 있을 때 마다 '헤드뱅킹'을 하곤 했다. 딸과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 아이는 바닥에 이마를 짚었다. 저자 자신도 엄마의 말을 들어 보면, 그나이 때에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도 헤드뱅킹을 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자신이 고집 부리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다면, 또 머리를 짜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들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아이가 쓰는 방법보다 더 미묘하다. 자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딱딱한 바닥을 머리로 맞치질하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육아 과정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똑같이 경험한 일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명상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끝내지 않고 그 것에 깊은 통찰을 더한다. 따라서 독자는 저자의 이야기에 동화돼 '그레 그레' '맛아 맛아' 하며 따라 가다 보면 어느덧 힐링이 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책은 30개의 장이 총 5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도입부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미리 말한다. 2부는 한순간에 폭풍처럼 밀려온 육아의 부담감으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3부와 4부는 아이가 있기에 자신이 얼마일 수 있음을 터득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5부에서는 자신이 얼마임을 깨닫는 순간 육아는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10,000원 A5/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